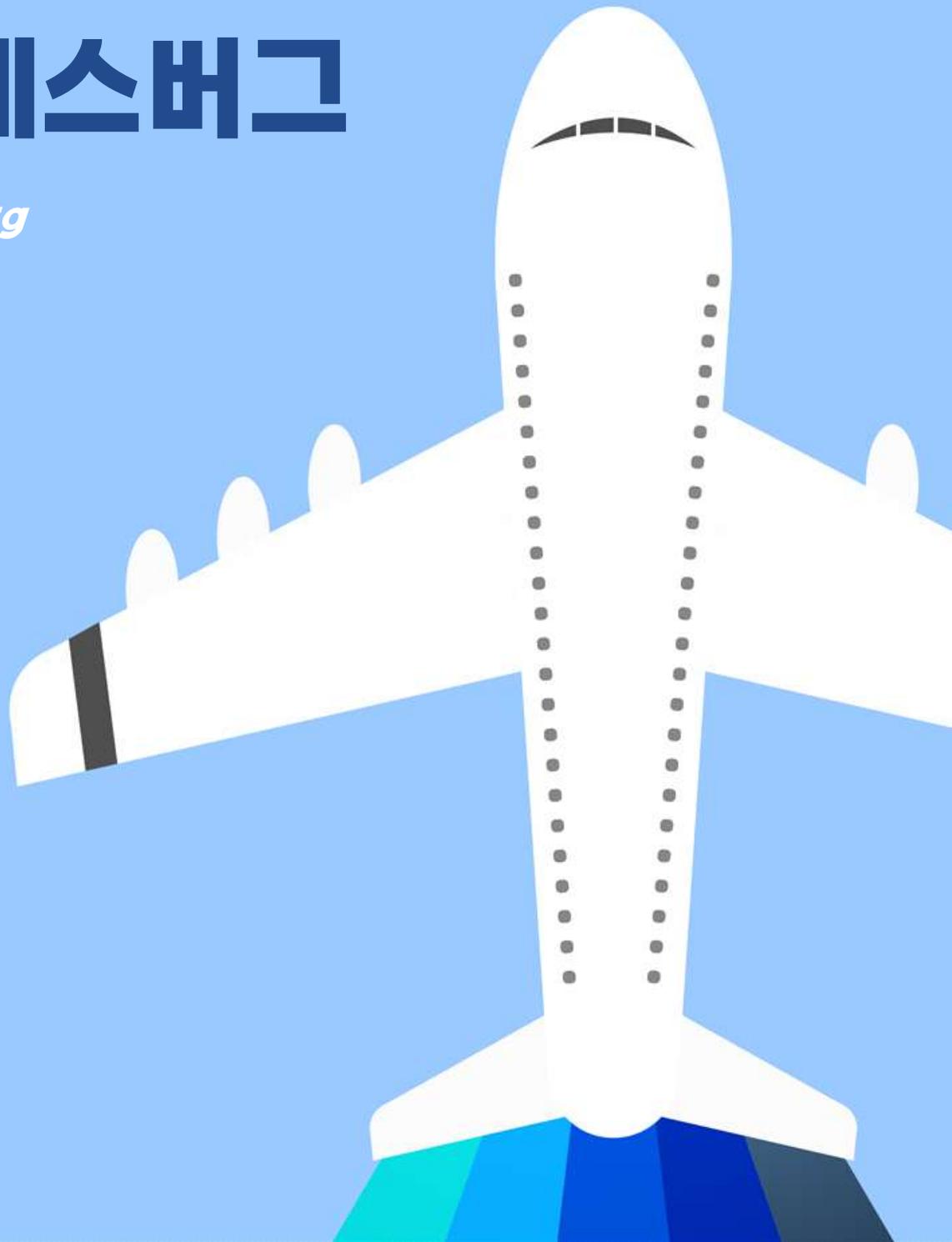


2023 해외출장 가이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Johannesburg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국가개황	1
II. 경제 및 산업 현황	3
III. 교역 및 투자	9
IV. 시장 특성 및 미팅 시 유의사항	13
V. 방문 및 체류안내	15
VI. 주요 관광지 및 연락처	21

I. 국가개황

1. 지도



2. 국가 개요

국명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위치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면적	1,219,090km ² - 한반도의 5.5배, 남한의 12배
기후	내륙 지방(온대성), 서부 해안(지중해성), 동부 해안(아열대성), 건조기후
수도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인구	6,060만명(2022년, 남아공 통계청)
주요 도시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케이프타운(Cape Town), 더반(Durban), 프레토리아(Pretoria)
인종 구성	흑인(81.0%), 혼혈(8.8%), 백인(7.6%), 인도/아시아계(2.6%)
언어	영어, 아프리카니어, зулу어, 코사어 등을 비롯한 11개 공식 언어 사용 비즈니스어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됨
종교	기독교(77.9%), 무교(10.9%), 전통신앙(4.4%), 이슬람(1.6%), 힌두교(1.0%) 등
국경일	4월 27일(Freedom day, 1994년 민주정부 수립 기념일)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내각제적 요소 가미: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등)
국가 원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Cyril Ramaphosa, 2018년 2월 취임)
GDP(명목)	4,059억 달러(2022년, 세계은행)
1인당 GDP(PPP)	15,904.8 달러(2021년, 세계은행)
화폐 단위	Rand(랜드), 2023년 9월 R18.9/\$ 선
교역 규모	2,344억 달러(2022년) - 수출: 1,233억 달러(귀석 및 귀금속, 광물 자원, 차량류 등) - 수입: 1,111억 달러(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화학제품 등)
경제적 강점	광물자원 풍부, 공업기반 양호, 금융업 발달
경제적 약점	전력난, 높은 실업률, 노사 분규, 치안 불안, 랜드화 가치 변동성 높음

3. 한국과의 관계

외교관계 수립	1992.12.01
교역	약 49억 달러(2022년) - 수출 : 11.5억 달러(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 수입 : 37.7억 달러(석탄, 금은및백금, 철광 등)
진출 현황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합상사, 대우포스코 등 20여개 기업

II. 경제 및 산업 현황

1. 경제

□ 경제 현황 및 전망

<남아공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단 위	2022	2023f	2024f
명목GDP	십억 달러	406	408	449
1인당GDP(PPP)	달러	16,302	16,925	17,388
실업률	%	33.5	31.6	30.0
환율(R:US\$, end-period)	랜드	16.37	18.05	18.32
GDP 대비 재정수지	%	-4.6	-5.7	-6.0

* 자료원: EIU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된 인프라와 금융 산업, 타 국가 대비 높은 소득 수준 등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허브 역할을 수행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 GDP의 22%를 점유하는 역내 경제 대국
- 2023년 경제성장률은 1분기 0.4%, 2분기 0.6%로 상반기에 예상보다 선전해 남아공 중앙은행이 올해 전망치를 0.4%에서 0.7%로 상향 조정
 - 현재 전력 생산 및 공급량이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고강도 순환단전 (Load-shedding)*을 1년 넘게 지속 중, 경제 침체에 가장 큰 원인
 - * 순환단전은 1에서 8단계까지 있으며 6단계 기준 하루 10시간동안 전력 공급 차단
 - 남아공 국영전력공사(Eskom), 남아프리카 항공(SAA) 등 주요 국영기업의 재정 부실, 전력수급 불안정, 높은 실업률 등이 만연
- 정부는 향후 10년간 178억 달러를 투입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탄소 중립과 함께 신규 전력 확보 추진
 -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용 촉매 핵심 소재인 백금의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 입지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함으로써 탄소중립 가속화 계획
 - 대체 에너지 개발과 함께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s, ESS), 수소 연료전지 등 보조 발전원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추구

- 한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세에 핵심 자원을 다수 보유한 남아공은 대체 시장으로 협력 대상국으로 부상 중
 - 글로벌 에너지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남아공 석탄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백금, 팔라듐 등 주요 자원들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 확대
 - 그러나 불안정한 전력으로 인한 광물 생산량 저하, 국영 물류 기업 및 광산 기업들의 노조 파업 등이 자원 수급에 영향

□ 정부 재정

- GDP 대비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안정화가 경제성장 안정화에 필수적
 - 경기부양, 국영기업 지원, 코로나19 보조금 지급 등으로 지출은 증가하는 데 반해 세입 부족, 공공임금 인상 요구, 국영기업 부채 등이 부담으로 작용
- 회계연도 2022/2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4.2%로 완화(기존 5.7%)
 - 2025/26에 3.2%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망(2023년 남아공 재무부 예산안)
- 남아공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22년 67.4% 수준(2020년 70.7%)

□ 대외경제

- 2022년 남아공 GDP 대비 경상수지는 -0.5%의 적자를 기록
 - 지속되는 전력난과 물류 파업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9년 이래로 처음 연간 적자 기록
- 재무부는 2024년 3월까지 경상수지가 GDP의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기준 금리 및 물가

- 남아공 중앙은행은 2021년 11월부터 10차례 연속 기준 금리 인상, 물가가 목표 범위인 3~6% 내로 다소 안정세를 보인 7월부터 8.25% 동결
 -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상존, 향후 3년 간 200bp 점진적인 인하 전망
- 올해 중앙은행 물가상승률 전망은 5.9%, 목표치 3-6% 가까스로 안착 예상
 - 고공 행진하는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 심리 위축, 시장은 가격에 더욱 민감

□ 환율

- 미국의 긴축 통화 및 달러 강세,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광물 수출 가격 약세, 러시아-미국 간 지정학적 갈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랜드 가치 절하
 - 2023년 상반기 환율은 달러당 18랜드 후반~19랜드까지 하락, 2024년에도 큰 변동성 보일 것

□ 국가 신용등급

- 국제 신용평가사 3사 모두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으로 평가
 - 신용평가사들은 남아공 국영기업들의 경영난 지속, 높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부진한 경제성장 등을 우려하며 경제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

<남아공 신용등급 현황>

	S&P	Moody's	Fitch
신용등급	BB-	Ba2	BB-
전망	Stable(안정적)	Stable(안정적)	Stable(안정적)

* 자료원: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취합

2. 산업

□ 산업 구조

- 남아공은 제조업, 건설업 외에도 금융, 유통, 서비스 등 3차 산업까지 고루 발전한 성숙된 산업구조 보유
 - 2022년 기준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3차 산업(74%)>2차 산업(18%) >1차 산업(8%)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금융·부동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제조업, 광업, 소매업 등이 남아공 GDP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
 - 세부적으로는 ICT, 의료, 자동차, 소비재 산업 등이 유망
 - 안정적 전력 수급, 생산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기술자 양성 및 고급인력의 노동시장 공급 확대 등은 전반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

□ 주요 산업

- (농업) GDP의 2.5% 비중인 농업은 주식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의 근간 산업
 - 남아공 전체 인구의 약 17%가 농업에 종사하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 생산성이 가장 높아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
 - 대표적인 농산물은 곡물(옥수수)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과일과 와인도 수출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급감은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

- (광업)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
 - 세계 크롬 매장량의 35.7%, 망간 30.3%, 형석 13.2%, 금 11.1%를 차지하며 세계 5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
 - 순환단전으로 인해 생산량이 저하되고 있으며 노조 파업 및 국영물류공사 (Transnet) 파업으로 수출량에도 타격
 - 외국인과 백인의 광산업 소유권을 제한하고 흑인 비중을 30%로 규정하는 수정 광업헌장도 광업 침체 요소로 작용

- (인프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프라 건설시장을 보유
 - 역내 타 국가 대비 잘 발달된 도로,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필요성이 높은 편
 - 더반,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등 주요 항만과 국제공항(요하네스버그, 더반, 케이프타운)을 운영, 아프리카의 교통 요충지 역할 수행

- (에너지) 발전량 80%를 의존하는 화력 발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릴 방침
 - 발전소 노후화, 남아공 국영전력공사(Eskom)의 높은 부채,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전력난이 심화되며 지역별, 시간별로 전력을 차단하는 순환단전 시행
 - 라마포사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으며, 2022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용량 확대 계획을 발표
 - 에너지저장장치, 태양열 발전기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요 증가 추세

- (ICT) 높은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률에 따라 ICT 산업도 발달
 - 2022년 남아공의 모바일 가입자 수는 약 1억 명, 2031년에는 약 1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모바일 산업은 꾸준히 성장
 - MTN, Vodacom, Rain 등 주요 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5G 서비스 도입

- (자동차산업)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남아공 정부는 자국 생산능력 배양을 위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
 - 자동차산업은 남아공 전체 GDP에 약 4%를 기여하는 대표 제조업
 - 남아공 정부는 정부 주도적 정책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남아공자동차제조협회는 2035 남아공 자동차마스터플랜(SAAM)을 통해 현지 생산 증대(60만 대→140만 대), 로컬 콘텐츠 비중 확대(38%→60%) 등 추진
 - 남아공에서 제조된 자동차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통해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에 용이

- (소비재) 계층별 소비 행태 분화, 소매유통업은 SSA에서 가장 발달
 -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대표적 소비시장으로 타 국가 대비 소득 수준이 높아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다수 진출
 - * 아프리카 럭셔리 시장의 37%(22억 달러 규모)가 남아공에 형성
 - 반면 전체 인구의 70%인 저소득층(월수입 550달러 미만)은 Spaza*를 중심으로 한 특유의 소비 문화를 형성
 - * Spaza: 저소득층 주거지에 있는 길거리 상점, 저가 상품을 소분해 초저가로 판매
 -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글로벌 콘텐츠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도가 낮아지며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도 증가하는 추세
 - 높은 모바일 보급률과 온라인 플랫폼 확대를 기반으로 온라인 시장 성장, 코로나19로 가속화되며 2023년 e-커머스 시장은 72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최근 높은 물가, 고용 부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에 더욱 민감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

- (관광) 도시와 자연환경을 모두 갖추며 아프리카 최대 관광산업 보유
 -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산업
 - 2022년 한해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58% 증가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8% 급증
 - 해외 관광객 중 62%는 유럽(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순) 국적

- (의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 보유
 - 2022년 남아공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까지 1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료용품은 소모품이나 의료용 가구 등이며 주로 수입에 의존(약 90%)하고 있어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다대

□ 주요 정책 및 규제

-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급진적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산업정책행동계획 (Industrial Policy Action Plan, IPAP)을 추진 중
 - 경제성장, 수출증진, 제조업 환경 구축, 인센티브 확대, 에너지 생산, IT 기술 발전, 정책적 확실성 강화 등이 주요 정책
-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개발지구(IDZ: Industrial Development Zone)와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운영
 - IDZ는 특정 산업단지가 아닌 전반적인 제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산업 단지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항 또는 항구 인접지역에 설치
 - 입주 시 법인세 감면, 통관편의 제공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
- 라마포사 대통령의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으로 각종 인센티브 확대
 - 세금 면제의 경우 법인세 특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되며 금융지원은 남아공 산업개발청(IDC: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운영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남아공 산업부는 투자 지원기관 Invest SA OSS(One Stop Shop)을 프레토리아, 요하네스버그 등 4개 도시에 오픈
- 흑인계층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 BBBEE) 시행 중
 - 흑인계층의 기업 소유권(Ownership) 및 지배력(Control) 향상,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평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흑인 기업에 대한 우대구매 정책이 핵심
 - BB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남아공 정부의 사업면허 발급 및 정부 발주사업 참여의 필수 조건
 - 공공조달 우대정책(Preferential Procurement Regulations)에 따라 공공기관 공개 입찰 참가 시 BBBEE 등급 보유 필수, 높은 점수 시 유리
- 남아공에서도 금융그룹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 움직임 확대
 -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프로젝트들 추진
 - 환경 외 ESG 경영 지표 중에서는 사회 경제적 문제(소득 불평등, 실업 등), 인종 및 성 차별이 가장 민감한 사안

Ⅲ. 교역 및 투자

1. 對세계 교역

□ 교역 규모

- 2022년 남아공의 대세계 교역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2,344억 달러
- 2023년 1~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12.6%), 수입(-1.2%) 모두 감소

<남아공 수출입 통계(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년 1~7월
수입	88,139	68,888	93,422	111,117	63,152
수출	89,771	85,566	122,853	123,257	64,504
무역수지	1,632	16,678	29,431	12,140	1,352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교역 특성

- (국가) 중국이 최대 교역국 자리를 유지, 독일과 미국이 2, 3위 기록
- 인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이 그 외 주요 수입국

<2022년 주요 국가별 수출입 통계(백만 달러, 증감 %)>

구분	중국	독일	미국	인도	일본
수입	22,383(16.72)	8,203(8.52)	8,158(24.64)	7,946(48.77)	2,846(9.58)
수출	11,608(-14.56)	10,052(-4.58)	10,864(-16.99)	5,340(28.77)	8,533(3.33)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품목) 광물자원, 자동차 등을 수출,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등 수입

<남아공의 對(대)세계 수출입 5대 품목(백만 달러, 증감 %)>

품목 (HS Code)	수입			수출			
	2021	2022	2023 1~7월	품목 (HS Code)	2021	2022	2023 1~7월
광물성 연료(27)	15,470	25,047	12,652 (-9.8)	귀석·반귀석·귀금속(71)	34,828	26,933	64,504 (-28.3)
전기기기(85)	8,598	10,396	8,007 (37.7)	광·슬랙·회(26)	18,099	16,033	9,380 (-8.7)
기계류(84)	11,276	12,480	7,581 (5.88)	광물성 연료(27)	10,498	17,263	7,352 (-24.6)
차량류(87)	6,304	8,278	5,227 (15.5)	차량류(87)	10,689	11,060	6,564 (2.6)
기타(98)	7,491	7,394	5,130 (13.4)	철강(72)	6,241	6,586	3,930 (-8.3)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 한-남아공 교역

□ 교역 규모

- 양국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49억 달러로 수출금액 기준 45위
 -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36% 증가, 對남아공 무역수지는 26.3억 달러 적자

<한국의 대(對)남아공 교역동향(백만 달러, 증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년 1~8월
수출	834	666	989	1,145	619
수입	2,186	1,692	2,621	3,770	2,499
교역 규모	3,020	2,358	3,610	4,915	3,118
무역수지	-1,352	-1,026	-1,633	-2,625	-1,879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교역 특성

- 자동차, 기계류를 수출하고 광물자원을 주로 수입
 - (수출) MTI 3단위 상위 10대 품목 중 석유제품, 합성수지, 알루미늄 등 급감
 - (수입) 10대 품목 중 자동차, 동광, 식물성물질, 정밀화학원료 수입 급증

<한국의 대(對)남아공 수출입 10대 품목(백만 달러, 증감 %)>

품목	수출				수입				
	2022		2023 1~8월		품목	2022		2023 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자동차	251	0.2	128	-23.0	석탄	1,345	274.3	931	3.3
석유제품	173	346.6	48	-61.9	철광	744	-19.0	406	-20.8
건설광산기계	61	17.7	43	0.1	금·은·백금	750	96.9	355	-28.3
합성수지	90	-4.8	42	-36.8	합금철선철	310	-1.4	181	-31.7
알루미늄	60	345.5	29	-23.5	자동차	59	-19.9	142	962.1
석유화학합성원료	0.9	81.3	29	-	동광	56	0.0	116	-
자동차부품	40	-3.5	25	-4.6	식물성물질	68	-1.5	101	104.5
기타석유화학	40	35.5	24	-19.7	기타금속광물	169	-2.1	88	-38.2
종이제품	35	39.5	17	-33.5	정밀화학원료	7	-68.6	23	477.2
동제품	17	-29.9	16	4.2	알루미늄	26	-6.5	18	-7.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3. 투자

□ 세계의 대남아공 투자현황

- 2022년 대(對)남아공 FDI 유입액은 9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9% 감소
 - 전년도 FDI 상당 부분이 Naspers와 자회사인 Prosus 간 주식 교환이었던 바, 해당 거래를 제외하고는 예년에 비해 투자 규모가 2배 정도 큰 편

<대(對)남아공 FDI 유입 추이(백만 달러)>

2017	2019	2020	2021	2022
2,008	4,624	3,106	40,889	9,051

* 자료원: UNCTAD

- 국경 간 인수 합병은 2021년 2억 8천만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그린필드 프로젝트 가치는 270억 달러로 5배 증가
 - 미국 기업 Digital Titan은 요하네스버그에 기반을 둔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제공 기업 TDE Investments) 지분 55%를 17억 달러에 인수
 - UAE 기업 URB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17평방 킬로미터 프로젝트인 The Parks*에 200억 달러 투자 발표
 - * 2022년 그린필드 프로젝트 중 전 세계 3번째로 큰 규모
- 라마포사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방안 중 2018-23년, 5년간 1,000억 달러 투자 유치에 공약하고 4번의 투자 총회를 개최하여 목표의 95% 투자 유치
 - 2022년 3월에 개최된 4차 총회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금액은 950억 랜드(약 52억 달러)로 중국, 스웨덴, 벨기에, 영국 등이 제조업, 건설업, 광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구성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BRICS 신개발은행(NDB), 남아공 산업개발은행(IDC) 등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 지원 약속
 - 분야별로는 통신(Telkom), 부동산(Waterfall Management), 미디어(Netflix), 보건(Aspen, Pfizer), 자동차(Ford, BMW, VW) 분야에서 투자 추가 유치

□ 한국의 대남아공 투자현황

- 1995년 만델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나 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
 - 한국 대기업 등이 남아공에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한 것이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

- 한국의 대(對)남아공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 2013년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9월 기준 누계 투자액은 약 3.4억 달러
 -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많고 전체 투자액의 대부분을 점유
 - 남아공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대우, 현대종합상사 등 약 20개사로 주로 현지 법인 또는 지사 형태로 진출
 - 그 외 개인 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 중이며 교민들은 주로 가발업, 식당,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에 종사

<최근 5년간의 한-남아공 투자 진출 현황(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2018	0	3	11	14
2019	1	5	5	2
2020	0	3	8	1
2021	0	2	13	9
2022	3	1	8	1
2023	1	1	8	11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IV. 시장 특성 및 미팅 시 유의사항

1. 시장 특성

□ 시장 구조

- (남부 아프리카 최대시장)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경제 동맹체제인 SADC GDP의 약 40%를 점하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최대 시장
 - 남아공은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비해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 많은 생활필수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조업도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운영
- (확연한 소비계층 구분) 흑인계층은 실업률이 높아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백인들은 유럽 수준의 부를 보유,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중간계층을 형성
 - 부유층인 백인계층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대상자로서 흑인정권이 들어선 지금에도 남아공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주체로서 활동
 - 흑인계층은 흑인 정부 집권 이후, 정부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신흥 부유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다수는 빈곤층
 - 흑인, 백인 다음으로 최대 인종인 인도인들은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에 진출, 현재 장관 및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등 정/재계에 걸쳐 현지에 동화

□ 시장 관행

- (공급자 중심 시장)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행된 UN의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바, 남아공 시장은 소비자 시장에서 공급자 시장으로 변모
 - 동 관행은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현재에도 남아있는데, 장기간 신용이 확보되지 않는 한 물품 구매에 앞서 선불을 요구하는 것이 다반사
 - 공급자 위주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유통단계별로 높은 마진율이 책정되고 있어, 수입제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수입가격의 약 2~3배 수준

- (에이전트 중심시장) 각 부문별로 독점 에이전트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남아공 수입상들은 수입 시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
 - 남아공은 시장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복수 수입상에게 물품을 공급할 경우, 시장을 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 독점 에이전트권 요구의 배경
 - 섬유, 기계, 전자제품 및 부품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5% 정도의 커미션을 요구
 - 남아공은 지역별로 상이한 상권 및 독특한 상관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장 세분화 전략이 필요

2. 미팅 시 유의사항

- (인종 및 종교문제 언급자제) 1994년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했으나 아직까지 그 영향이 심리적으로 남아있으므로, 인종문제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
 - 남아공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및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보급되어 있으므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종교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가격 결정시 높은 유통마진 고려) 남아공은 유통단계별로 높은 마진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가격과 수입가격에 큰 차이 발생
 - 현지 시장가격과 바이어가 요구하는 가격은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출 가격 결정 시 현지의 시장가격을 고려하되 높은 유통 마진을 충분히 감안
- (에이전트 상담 시 유의사항) 남아공은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에이전트 간에는 정보교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 에이전트와의 상담결과가 다른 바이어에게도 알려질 것임을 유념
 - 바이어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남아공에서는 부적절

V. 방문 및 체류안내

1. 방문 안내

□ 남아공 출입국 절차 및 비자

- 출입국 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심사를 진행
 - 남아공은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공항에서 방문비자(30일)를 발급하므로, 30일 이내 체류 시 한국에서 사전 비자 발급은 불필요
 - 비즈니스 출장자와 같은 단기 방문자는 왕복항공권 지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입국 거부 가능
 - 입국심사 후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은 非신고구역(Green Channel)과 신고구역(Red Channel)으로 구분
 - 코로나19 팬더믹이 종료되어 남아공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지만 세관 직원에 따라 간혹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지참하는 것이 안전
- 최근 중국인 방문객들의 불법적 물건 반입이 빈번, 동양인들에 대한 소지품 확인 절차가 강화
 - 제품 샘플 등을 소지하고 오는 경우 남아공 세관에 신고를 하고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TA Camet을 발급받아 통관 시 제출
 - 대부분의 출장자들은 세관 신고 없이 샘플 등을 반입해 오고 있는데,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예방접종

- 한국에서 남아공 입국 시에는 별도의 예방접종은 불필요
 - 특히 요하네스버그는 말라리아, 황열병 등과 같은 풍토병 안전지대
 - 남아공 내 크루거 국립공원이나 인근 짐바브웨 및 모잠비크 국경지대 등은 말라리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여름철(11월~3월)에 동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고

□ 환전

- 남아공의 화폐단위는 랜드(Rand)이며 지폐는 10, 20, 50, 100, 200랜드
 - 2023년 4월 기준 환율은 1\$당 약 18랜드이며, 은행, 호텔, 환전소, 공항 등에서 환전할 수 있고 환전 시에는 여권 필요
- 남아공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소액만 환전하고 큰 금액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많은 양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강도 등 범죄 타겟이 될 수 있음

□ VAT 환급

- 남아공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출국 시 부가세 15% 환급 가능
 - 물품 구입액이 R250 이상인 경우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 가능(호텔비, 렌트비, 가이드비, 식음료비, 식사비 등 증빙할 수 없는 대상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VAT 환급에는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만 VAT 환급절차를 여유 있게
 - 물품을 구매한 상점에서 VAT 환급 영수증 발급(여권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물품 구매 시 제시하는 여권이 출국자의 것이어야 함.)
 - 공항에서 체크인 전 공항 VAT 환급 심사대에서 VAT 환급영수증과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 도장을 받음
 - VAT 환급소에 가서 여권과 세관원의 도장이 찍힌 Tax Invoice를 제출
 - VAT 환급소 직원은 환급금액을 계산, VAT Refund Card를 전달
 - R3000 이하의 경우 3일 이내에 발급된 카드로 환급, 카드로 직접 물품 구매 또는 MasterCard® Acceptance Mark를 지원하는 ATM에서 출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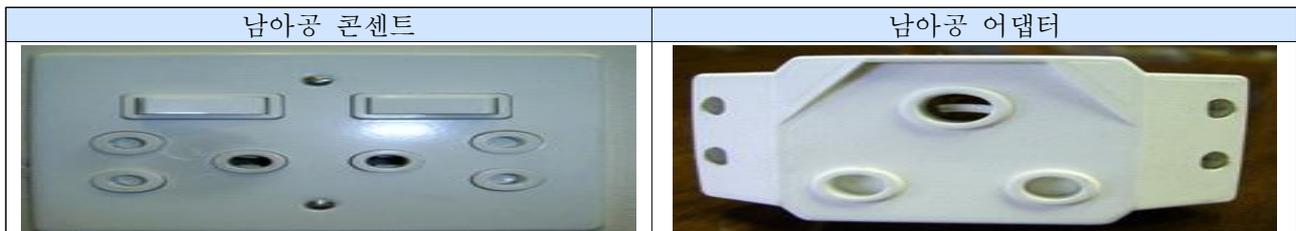
2. 체류 안내

□ 기후

- 남아공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계절이며, 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절을 가지고 있으나 봄, 가을은 대체적으로 짧은 편
 - 연평균 기온은 약 17°C, 강수량은 466mm로 연간 강수량이 200mm 이하인 지역이 20%, 200mm~600mm 지역이 50%, 600mm 이상인 지역이 30%
- 요하네스버그는 해발 1,750mm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조한 기후
 - 일교차가 매우 크고, 특히 겨울에는 아침/저녁으로 영상의 기온이지만, 체감온도는 영하까지도 하락(여름철 평균기온은 낮 30°C, 아침저녁 20°C)

□ 사용 전압

- 남아공의 표준전압 및 주파수는 220~250V/50HZ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전자제품은 어댑터만 변경하면 별도의 전압조절장치 없이 사용 가능
 - 남아공 플러그는 3개의 둥근 구멍이 있는 삼각형 모양
 - 어댑터는 호텔에 비치되어 있거나 로비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할인마트(Pick n Pay, Checkers, Game 등)에서도 구입 가능(한화 2,000원 내외)



□ 전화 이용방법

- 한국(서울)으로 전화하는 방법
 - 국제전화: 00-82(한국국가번호)-2(서울지역번호)-전화번호
- 남아공 내 전화 요령
 - 지역번호를 누른 다음 전화번호를 누르면 통화 가능
 - 지역번호: 요하네스버그(011), 프레토리아(012), 케이프타운(021), 더반(031)

□ 인터넷 환경 및 사용

- 광케이블이 일반 가정에도 도입되어 있고 급속도로 발달 중이나 요금이 비싸고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은 대부분 느리고 불안정
 - 순환단전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안될 경우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데, 보통 호텔에서는 정전에도 대체 전력이 구비되어 있어 인터넷 가능
 - Business Centre 또는 일반 룸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추가 요금 발생 가능)
 - 일부 대형 쇼핑몰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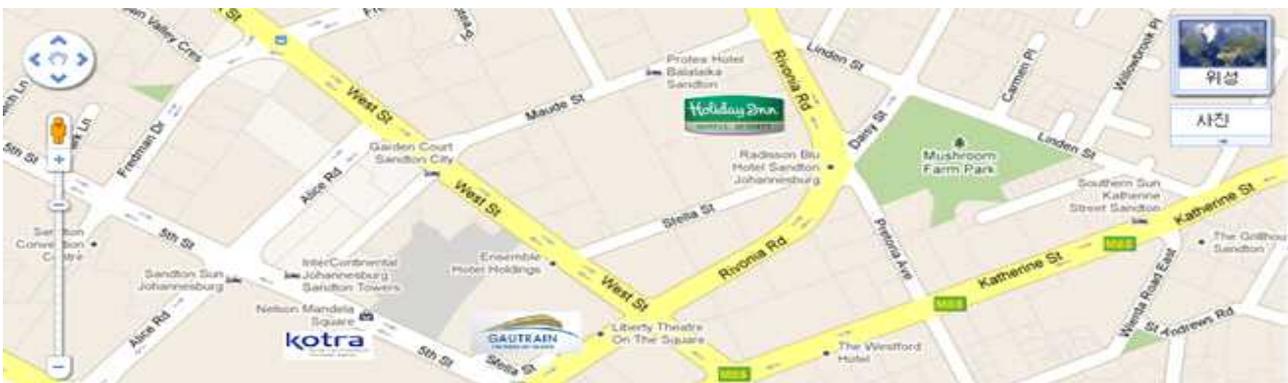
□ 교통편 이용방법

-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샌톤 지역 간 고속철(Gautrain)을 이용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이동 가능
 -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친 후 도착 출구로 나와 안내정보 표지판 옆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층 올라가서 공항 내 도보 20~30m 후 고속철도 역 도착



공항(OR Tambo)에서 Sandton까지 : R191

<Sandton 지역 지도, 전시장, 코트라무역관, 호텔>



- 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이용은 절대 금지
 -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호텔이나 공항 등에서 공인된 택시를 이용하고, 가능한 통역원 또는 지인 등과 함께 승차하는 것이 바람직

*****남아공 교통편 이용 시 참고 사항*****

남아공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공항에서 시내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함. 공항택시가 운행되고 있지만, 택시강도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실제로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했다가 강도를 당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비즈니스 출장자들은 호텔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항셔틀버스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집, 남아공 내 거래선에 픽업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공항에서 직접 차량을 렌트할 수도 있으나,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복잡하여 잘못하면 범죄 우발 지역인 다운타운 및 흑인 밀집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음.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호텔에 신청하여 콜택시를 이용하거나 우버(Uber) 택시를 이용하시길 바람. 야간에 도착하는 항공일정은 위험함. OR Tambo 국제공항에는 여행객들을 노리는 범죄조직이 많으므로 특히 동양인의 경우 야간에 도착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야 함.

요하네스버그는 치안상황이 좋지 않아 외국인이 거리를 걸어도 다닐 경우 주야를 불문하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고 어두워지면 이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함.

- 주요 렌트카 회사 홈페이지
 - (AVIS) www.avis.co.za
 - (BUDGET) www.budget.co.za
 - (HERTZ) www.hertz.co.za

*****남아공 치안 관련 참고 사항*****

요하네스버그는 치안이 열악해 안전한 곳에서도 항상 소지품을 잘 챙겨야함. 대형 쇼핑몰을 걸어 다닐 때도 가방은 지퍼가 있어 완전히 잠글 수 있는 것이어야 소매치기를 방지할 수 있음(에코백과 같이 열어놓은 채로 사용하는 가방 사용 지양). 스마트폰을 걸옷 바깥 주머니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을 경우 소매치기의 타겟이 될 수 있으므로 바지 앞주머니 또는 걸옷 안주머니를 이용하는 것을 권함. 크로스백을 사용할 경우 가방을 꼭 앞으로 매어 지퍼가 시야에 있도록 해야 함.

차량에서도 가방을 트렁크나 바닥에 두어 차량 바깥에서 귀중품이 차 안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함. 스마트폰은 항상 소매치기가 노리는 품목이므로 차 안에서라도 조심하는 것이 좋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하는 것이 안전함.

*****남아공 여행 기타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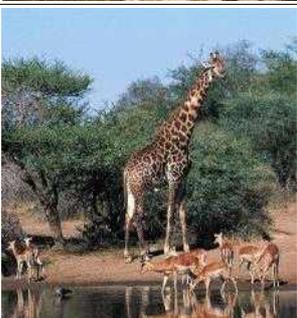
- 팁 관행
 - 식당에서는 10% 정도의 팁을 지불하며 호텔에서 룸서비스나 포터에게 미화 1달러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되며 택시 이용에는 팁이 없음
- 구두닦이
 - 주요 호텔 정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약 20랜드(미화 1.1달러) 정도의 팁을 지불
- 특산품
 - 아프리카 전통 공예 장식품이나 구슬공예, 건강식품(악마의 발톱, 오메가3, 모링가, 루이보스) 등
- 근무시간
 - 일반 업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토·일요일은 휴무임. 소매 업종의 경우 대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며 대형 쇼핑몰은 오후 8시까지 오픈하기도 함

□ 체류 시 유의사항 (중요)

-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치안 국가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요하네스버그 지역은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가 빈번히 발생
- 외국인 방문객은 범죄 타겟이 되기 쉬우므로 다음 행동 지침 필히 준수
 - (공항 도착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 및 출장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미행 강도 범죄가 성행하므로 중요한 귀중품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소지, 호텔로 이동하는 중에도 미행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주의를 기울일 것
 - (단독외출삼가) 범죄율이 높은 빈민가 지역인 요하네스버그 중심가(CBD)나 알렉산드라 지역 등은 출입을 삼가며 언제든지 단독 외출은 자제
 - (야간외출금지) 어두워져 주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대는 외출을 삼가며,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된 차량을 이용
 - (귀중품 관리) 귀중품은 반드시 호텔에 예치하거나 본인이 소지. 호텔에서 식사 시 지갑을 방안에 두고 가는 경우에도 청소원이 훔치는 사례가 있으며 상담 시에도 상의 안에 귀중품을 두고 의자에 걸지 않도록 함. 차 유리창을 깨고 내부 소지품을 훔쳐가거나 Jamming(리모콘 잠금장치에 전파 교란을 주어 문이 잠기지 않게 한 후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 사례가 빈번하므로 차량 안에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행위는 삼갈 것
 - (환전 시 유의) 인적이 드문 곳이나 노상에 위치한 현금인출기 등은 이용을 삼가고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경우 가능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택하여 인출 후 뒤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것
 - (폭력시위 발생 시) 남아공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가중에 따라 국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택시 조합은 주로 도시간 고속도로의 통행을 막고 타이어와 차량을 불태우는 무력 시위를 벌임. 사태 발생 시 군중이 모여 있는 집결지에 접근하지 않고, 외국인혐오범죄(Xenophobia) 유의
 - (피습 시) 괴한의 피습을 받을 경우 저항하거나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 대부분의 범죄자는 총을 소지하고 있음
 - (신속피신) 외출 시 귀중품이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동료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수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 신속히 피신

VI. 주요 관광지 및 연락처

□ 관광 명소

	관광지	안내
Gold Reef City		<p>과거에는 금광이었으나 현재는 관광지로 개발, 요하네스버그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SANDTON 지역으로부터 약 30분 정도 소요됨. 롤러코스터 등 놀이 시설과 지하 280m까지 내려가서 과거 금광을 둘러보는 코스가 있음</p>
Lion Park		<p>요하네스버그 중심지에서 서북쪽 외곽으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함. 약 50여 마리의 사자들이 있으며 기타 얼룩말 등 초식 동물들이 있음. 투어 프로그램에 따라 입장료는 별도</p>
Sun City		<p>카지노, 호텔, 수영장, 골프장 등으로 조성된 SUN CITY는 요하네스버그 서북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용차로 약 2시간 거리임. 요하네스버그 SANDTON SUN 호텔 앞에서 셔틀버스가 운영</p>
Table Mountain		<p>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산 정상이 마치 테이블처럼 평평함. 케이블카를 통해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케이프타운 시내와 대서양, 인도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p>
Cape Point		<p>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희망봉으로 알려진 곳. 이곳은 아프리카 남단으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대륙 개척 시 처음 도착한 지점으로 유명함</p>
National Kruger Park		<p>남아공 북쪽 음푸말랑가 주에 소재한 자연 동물 공원으로 사자, 코끼리, 기린 등 각종 야생 동물을 차로 이동하면서 보는 곳, 요하네스버그에서 차로 약 5시간 정도 소요됨. 사파리는 일정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수렵 대상 동물도 한정되어 있으나 게임을 하듯이 자동차를 타고 공원 곳곳을 이리저리 오가며 각종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도로를 갖춤</p>

☐ 체류 중 주요 연락처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주소: 18th Floor, Sandton Office Tower, Corner. Rivonia & 5th Street, Sandton, South Africa

구 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 고
KOTRA JHB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27-11-784-2940	+27-11-784-2983	김명희 본부장 : +27-60-997-9788 장선영 부관장 : +27-76-699-9008 허종원 차 장 : +27-64-866-2255 전준형 과 장 : +27-82-083-6035 황선경 과 장 : +27-64-946-6339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27-12-460-2508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27-66-332-5897
한국식당	+27-11-234-7292 +27-11-465-3562 +27-11-883-0020 +27-11-467-0488 +27-12-346-3260 +27-21-671-4604		대장금 (Rivonia, JHB) 아리랑 (Fourways, JHB) 반찬 (Sandton, JHB) 한국관 (Fourways, JHB) 신라 (Pretoria) 성북정 (Cape Town)
한국식품점	+27-11-803-2344 +27-71-555-9006 +27-12-362-0097 +27-76-835-5702		코코로 리보니아 (Rivonia, JHB) 코코로 포웨이즈 (Fourways, JHB) 코코로 프레토리아 (Pretoria) 코리아 마켓(Cape Town)
한인운영 여행사	+27-11-465-0313 +27-11-234-1056		Gilbot Travel (윤혜선) Africa Tour Story (진윤석)

☐ 유용한 현지 표현

한국어	영어	현지어 (Zulu: 줄루어)
안녕하세요	Hello	Sawubona 사보나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Unjani? 운자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Siyabonga 시야봉가
예	Yes	Yebo 예보
아니오	No	Cha 차
실례합니다	Excuse me	Uxolo 콜로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